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TEL.(02)726-1010(대), 1176 FAX.(02)726-1292
연구원 홈페이지(www.sdi.re.kr)를 통해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도시동향 17

2001년 2월 19일

HEADLINE NEWS

'보도에 쌓인 눈 치우기' 조례 제정 및 벌금제도 시행 (미시간州 앤아버市)

미시간州 앤아버市는 겨울철 보도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행공간의 제설작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눈 치우기에 등한시하는 경우에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보도 결빙(結氷)으로 인해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청결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市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제설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市는 '보도에 쌓인 눈 치우기'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 안전을 염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도덕심과 애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www.ci.ann-arbor.mi.us/framed/publserv/Transportation/sidwalk.htm)

HIGHLIGHTS

도시관리

1 제설용 '소금'이 전기합선사고 초래 (뉴욕)
2 '디지털 시티'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 「전자도시 계획」 추진 (핀란드 : 탐페레市)
3 2010년까지 관광객 5천만명 유치 추진 (교토)
4 별 보기 쉽도록 옥외광고판 조명시설 규제 (애리조나州 투산市)
5 주요 가로에 '관광정보도우미' 배치 (멜버른)
6 「애견등록제」 도입해 떠돌이 개에 의한 피해 방지 (영국 도시)

도시환경

7 스모그 방지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강화 (토론토)
8 홍수방지용 인공 생태습지 조성 (홍콩)

도시교통

9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新교통정책지표」 발표 (밴쿠버)
10 자전거가 주요한 '시민의 발'로 부상 (뉴욕)

행.재정

11 주민의 의견·제안을 기초로 「電子都廳」 추진 (동경)
12 '관광비수기'의 마케팅 전략으로 「겨울축제」 개최 (뉴욕)

사회복지

13 저소득층 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샌프란시스코)
14 방학 중 학생 아르바이트 자리 제공 및 알선 (시카고)

1 제설용 '소금'이 전기합선사고 초래 (뉴욕)

뉴욕市가 겨울철 제설용으로 사용하는 암염(Rock Salt)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에 매설된 전선의 피복을 부식시킴으로써 전기합선사고를 초래하고 있다. 市는 지난 겨울 폭설 때 12만7천톤의 암염을 거리에 살포하였는데, 1월초 市 전역에서 14건의 지하 폭발과 400여건의 전선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전문가들은 소금이 전도성이 있고, 전선의 피복을 부식시켜 합선의 원인이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市는 현재로서는 암염 살포 이외에 효과적인 제설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2001. 1. 12)

2 '디지털 시티'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전자도시계획」추진 (핀란드 : 탐페레市)

핀란드 중심부에 위치한 탐페레(Tampere)市는 세계적 정보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확대, 지식기반 연구 및 교육 강화, 그리고 정보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전자도시계획(e-Tampere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립된 이 계획에 따르면, 2001년까지 전 시민에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교통수단인 NetBus 도입을 추진한다. 시민 대상 인터넷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하며, 인터넷 관련 사업가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市는 이 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억 핀란드마르크를 투입하기로 했다. 市는 이를 위해 市 예산 1억 핀란드마르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그리고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인 노키아(Nokia)社의 통신기기 지원 등을 통해 추진 비용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계획이 유럽연합의「전자유럽계획(e-Europe Project)」최초 적용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시 유럽연합 차원의 자금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www.finnfacts.com/FFeng42000/tampere_looking_to_become_a_cent.htm)

3 2010년까지 관광객 5천만명 유치 추진 (교토)

교토市는 1월 17일, 2010년까지 관광객 5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관광진흥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교토市 기본계획」내 관광진흥 부문의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서, 2005년까지 추진할 5대 중점전략과 25개 중점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市는 연중(年中) 관광의 추진, 지역특성 및 개성을 살린 관광 진흥, 도시마케팅 강화, 정보통신기술(IT) 활용,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5대 중점전략으로 해, 특색 있는 관광모델지역 선정, 휴대폰과 관광정보를 연결하는 관광안내시스템 개발, 다양한 테마별 관광코스 1만개 개발 등을 비롯, 25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www.city.kyoto.jp/koho/shichou/kaiken/kaiken/12_5.htm)

4 별 보기 쉽도록 옥외광고판 조명시설 규제 (애리조나州 투산市)

애리조나州 대법원은 최근 별을 보다 쉽게 관측하기 위해 투산市가 추진중인 대형 옥외광고판 조명시설 규제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투산市는 야간에 기상천문관측소의 천문관측이 가능하도록 'Dark Skies'를 만들기 위해 기존 대형광고판을 대상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비추는 조명시설을 금지시키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비추는 조명시설로 교체토록 했다.

(www.azdailysun.com/index.cfm?sec=sto&storyID=11103&issuedate=02/06/2001)

5 주요 가로에 '관광정보도우미' 배치 (멜버른)

최근 호주 멜버른市는 호주오픈테니스대회, 국제크리켓대회 등의 국제행사 관람을 위해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편안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정보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용, 보다 친근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관광정보도우미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주민 중에서 일정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얼마간의 교육을 거친 후 주요 가로에 배치된다. 특히, 순회도우미는 市의 주요 가로를 순회하면서 관광객에게 정확한 지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市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시험운용 성과에 따라 향후 운용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www.melbourne.vic.gov.au/frontdesk/genenq.../ambassador_main.cf)

6 「애견등록제」 도입해 '떠돌이 개'에 의한 피해 방지 (영국 도시)

영국 환경교통부(DETR)는 '떠돌이 개'를 주인에게 찾아주고, 떠돌이 개로 초래되는 주민들의 피해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개 주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애견을 마이크로칩 또는 문신으로 등록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개 주인들의 관리 미비로 연간 13만5천 마리의 개들이 집 없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 이 개들이 지역 농가와 주민에게 끼치는 피해도 막심해, 피해액이 연간 200만 파운드에 달하고 있으며, 경찰 및 지자체의 관련예산 소요액도 2,600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영국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전체 개의 75%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등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단체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www.press.detr.gov.uk/0012/0750.htm)

7 스모그 방지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강화 (토론토)

토론토市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스모그 원인물질의 주 배출원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관리를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전략으로 설정,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 인증하는 제도(Mandatory Drive Clean Test)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째인 운행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에는 약 2백15만대가 배출가스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31만3천대가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市는 불합격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 등을 통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검사대상 차량을 더욱 확대, 승용차, 트럭, 밴 등 약 5백만대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제도 시행 첫해 스모그 원인 물질의 배출량을 약 6.7% 저감한 市는 2004년 후반기에는 저감 목표 약 2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ww.ene.gov.on.ca/envision/news/dr1201.htm)

8 홍수방지용 인공 생태습지 조성 (홍콩)

홍콩은 처음으로 홍수방지용 인공 생태습지를 조성했다. 홍콩의 고속도로사업부가 Shenzhen江의 범람에 대비, 4백만 달러를 투입해 지난달 조성 완료한 이 습지에는 자체 생태계 유지를 위해 20종 3만5천 그루의 습지용 수목이 식재되었다. 향후 이 인공습지는 우기(雨期)에 수고(水高)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www.hk-imail.com/inews/public/article_v.cfm?articleid=16377&intcatid=1)

9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新교통정책지표」발표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市에 있는 빅토리아 교통정책연구소는 평균이동속도, 주차장이용 편리성, 교통사고 빈도 등 기존의 자동차 중심 교통지표가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와 역행한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교통정책지표」를 최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통평가지표로서 교통수송분담률, 교통약자의 이동가능성,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 토지이용 혼재도, 보행과 자전거 이용의 질, 교통 사고 및 피해자 수,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량 및 오염량, 교통시설 점유 면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www.vtpi.org/sus-indx.pdf)

자전거가 주요한 '시민의 발'로 부상 (뉴욕)

뉴욕市의 자전거 이용자 수가 1980년 이후 100% 이상 증가하는 등 점차 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市가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자전거네트워크개선프로그램(Bicycle Network Development Program)」을 추진해온 결과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市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350마일의 자전거도로(Greenway)를 계획했으며, 자전거 교통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편의시설의 계획설계에서부터 설치 및 개선, 市 주무부서와 관련단체들의 프로그램 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www.ci.nyc.ny.us/html/dcp/html/welcome.htm)

주민의 의견·제안을 기초로 「電子都廳」 추진 (동경)

東京都는 정보통신기술(IT)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 도정(都政)의 투명성 제고, 행정운영의 효율화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電子都廳추진계획」(안)의 중간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정보통신기술(IT)을 도정의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도청」 구축의 실시계획으로서, 올해 3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都는 최종 마무리를 위해 올해 2월말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는 중이다.

(www.metro.tokyo.jp/INET/KEIKAKU/SHOUSAI/70ACQ200.HTM)

'관광비수기'의 마케팅 전략으로 「겨울축제」 개최 (뉴욕)

뉴욕市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뉴욕市 겨울축제(Paint the Town Red : New York City's Winter Celebration)」를 개최하고 있다. 市는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에게 최고급 음식점 100여 곳의 점심을 20달러의 고정가격으로 시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박물관, 예술센터, 식물원, 동물원, 유적지 등 60여 곳의 문화시설에서 60분간 각각의 '하이라이트'만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Insider's Hour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축제가 시작된 1월 5일 저녁부터 뉴욕의 명물인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링컨센터,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공공도서관 등 市의 랜드마크 건물을 인정, 사랑, 축제, 재미 등을 의미하는 빨간색 조명으로 물들이고 있다.

市의 관광수입이 연간 24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겨울 정기휴가 시즌이 끝나는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는 관광객이 급감해왔다. 이에 市는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겨울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www.ci.nyc.ny.us/html/om/html/2001a/pr005-01.html)

저소득층 주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샌프란시스코)

미국 San Francisco Bay Area의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MTC)은 저소득층의 육아 및 출퇴근을 돕기 위해 향후 3년간 12개의 교통부문 프로젝트에 총 5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교통지원프로그램을 지난해 12월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중교통에 의존적인 저소득층의 통행특성을 고려, 계획된 12개의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도입, 야간 근무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행시간 연장, 맞벌이 부모를 둔 학생들을 위한 등하교용 스쿨버스 도입, 긴급상황 발생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Low-Income Flexible Transport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게 된다.

(www.mtc.dst.ca.us/whats_happening/press_release/rel125.htm)

방학 중 학생 아르바이트 자리 제공 및 알선 (시카고)

시카고市는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용돈도 벌면서 사회 생활도 경험하고, 일을 통해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청소년 대상 「취업 프로그램」은 市가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市는 각 부서별로 학생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각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市는 현재 공립 학교, 공공도서관, 市 인력개발부서 등과 함께 14~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루 4~6시간 근무에 월 150~4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市는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다.

(www.ci.chi.il.us/Mayor/2001Press/news_press_summerjobs.html)